



윤형숙 열사

‘남도의 유관순’ 윤형숙…불꽃같은 삶 무대에

1919년 3·10 광주 만세운동 선두에 선 어린 여학생
일본 헌병 칼날에 왼팔 잘리고 모진 고문에 눈도 잃어
항일운동·여성 계몽·문맹 퇴치운동 앞장 ‘조선의 혈녀’

여수연극협회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15일 여수 시민회관
연극·음악·퍼포먼스 어우러진 총체극…‘격동의 현장’ 몰입감 선사

“나는 조선의 혈녀(血女)다.”

1919년 3·10 광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한 어린 여학생이 있었다. 바로 윤형숙 열사. 시위 도중 일본 헌병의 칼날에 왼팔이 잘려나갔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더욱 우렁차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팔을 잃고, 눈을 잃고도 꺾이지 않았던 그날의 불꽃 같은 외침이 106년 만에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여수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1900~1950) 열사의 삶을 그린 총체극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가 오는 15일 오후 4시 여수 시민회관 무대에 오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다.

이번 작품은 여수연극협회와 극단 예술마당이 공

동주최하고, 강남진 백제예술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윤형숙 열사는 여수 화양면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과 변요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한 그는 박애순 교사에게 민족교육을 배우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1919년 3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을 울리던 시기, 윤 열사는 박 교사와 동지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거사에 나섰다.

3월 10일 광주 장날, 인파가 붐비는 장터에서 태극기를 높이 든 윤형숙은 시위대의 맨 앞에 섰다. 그 순간 일본 헌병이 군도를 휘둘러 왼팔이 잘려나가는 참변이 벌어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는 곧 일어나 오른손에 태극기를 움켜쥐고, 오히려 더 크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체포된 뒤 ‘배후가



양은순 배우



남경용 배우

누구나’는 거듭된 추궁에도 “나는 보디시피 피를 흘리는 조선의 혈녀다”라며 당당히 맞섰다.

흑독한 옥고와 고문으로 결국 오른쪽 눈까지 잃었지만, 윤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출옥 후에도 그는 ‘혈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항일운동과 여성 계몽,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학생들과 연대했고, 원산·고창·여수 등지에서 교사와 전도사로 활동했다. ‘외팔·외눈박이 전도사’로 불리던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전파했다.



여수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조형물에 새겨진 윤형숙 열사.

/연합뉴스

그러나 그의 삶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되던 날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체포된 그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여수 둔덕동 과수원에서 총살됐다. 정부는 2004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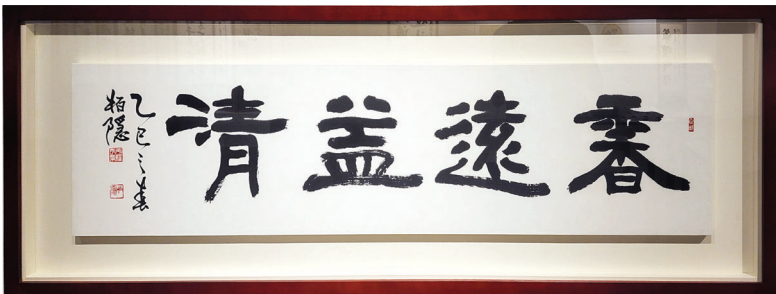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이러한 윤형숙 열사의 치열한 생애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무대는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어떤 폭력과 억압도 겪을 수 없었던 신념과 용기를 담아낸다. 어린 시절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를 품고 배움의 길을 걸던 소녀가 민족교육의 뜻을 깨닫고 독립운동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장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깨우치는 장면을 통해 여성도 민족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연극·음악·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총체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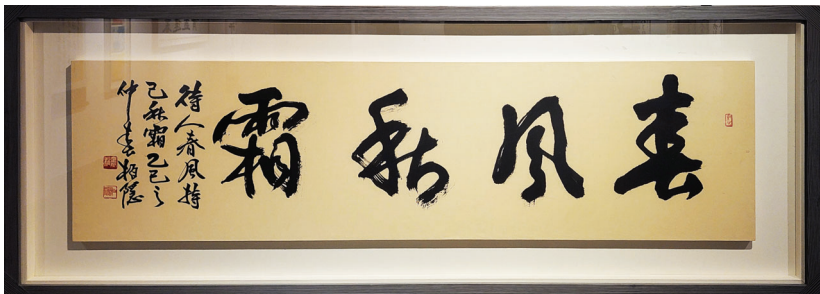
형식으로, 단순한 전기극을 넘어 역사와 감정을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면 전환,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장치는 관객으로 하여금 100여 년 전 격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시위 장면에서는 웅장한 군중 합창과 북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옥중 장면에서는 절제된 조명과 음악이 인물의 내면을 비춘다.

여수연극협회 양은순 지부장은 “윤형숙 열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고,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을 위해 싸운 인물이 이렇게 재조명되는 일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중요한 문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香遠益清’



‘春風秋霜’

墨직한 품성…기교보다 전통의 미학

무등갤러리 오늘까지 김영권 개인전…‘춘풍추상’ 등 66점 선보

국전 특선을 3회하고 광주시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백은 김영권이 첫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13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백은 김영권 서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모두 66점을 선보인다.

어느 서체에도 안주하지 않고 정진해온 그는 우리 옛것에 천착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전서, 예서 공부를 많이 했다.

김 작가가 서예에 입문한 것은 올해로 11년. 조용하고 묵직한 품성의 소유자인 그는 기교보다 전통의 미학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서예에 매진

해왔다. 기아자동차에서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2년간 준비 끝에 이번 작품전을 열게 됐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특유의 묵향과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명구들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가 서도의 길을 걸으며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는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春風秋霜’(춘풍추상)이 그것이다. 대부분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한 것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春風秋霜’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香遠益清’(향원익청)도 곱씹을 만한 문구다.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돈이는 은은한 연꽃의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진다고 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체세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香遠益清’이 주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스승인 정광주 서예가는 “김 작가의 진중한 성품이 다양한 작품에 배어 있다”며 “특히 갑골문, 금문 같은 옛 서체가 발하는 무거우면서도 강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작가는 조선대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등에 참여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시실 내부 모습.

광주문화재단 배우 이경영 초청 무료 특강

20일 전통문화관 서석당

깊이 있는 목소리와 선 굵은 연기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온 배우 이경영(사진)이 광주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쌓아온 40여 년의 연기 경험과 삶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무료 특강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여름 특별프로그램

‘배우를 배운다’를 연다. 강연자로 나서는 이경영은 ‘배우의 삶과 연기자’의 길’을 주제로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와 작품 속 뒷이야기, 무대 밖의 일상과 생각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경영은 1987년 KBS 18기 공채 성우로 출발해, 10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다. 드라마 ‘보통사람들’, ‘대주나루 사랑결려킬’, ‘용의 눈물’, ‘명성황후’, ‘불멸의 이순신’, ‘주몽’, ‘연개소문’, ‘대왕세종’, ‘이산’ 등 다양한 장르와 시대극에서 안경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



라고 전했다.

참가비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았다.

노혜옥 대표이사는 “연극·영화 전공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며 “진로 탐색과 문화적 영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



왼쪽부터 강태훈, 김정우, 신술찬, 문기영.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젊은 소리, 새로운 물결

국립남도국악원, 16일 ‘차세대 명인전1’

무대 위에 선 네 명의 젊은 예술가가 저마다의 가락과 몸짓으로 전통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다채로운 기량 위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관객 앞에 ‘오늘의 국악’을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차세대 명인전1-전통의 새물결’을 연다. 예술적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국악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국악원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젊은 예인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출연자들이 공연 기획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무대에는 강태훈, 문기영, 신술찬, 김정우 등 네 명의 차세대 명인이 오른다. 첫 순서는 거문고 연주자 강태훈이다. 그는 2023년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2017년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 부문 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번 공연에서는 섬세한 선율과 힘 있는 장단이 어우러진 ‘임동식제 거문고산조’를 연주한다.

이어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 수석 문기영이 ‘서용석류 피리산조’를 선보인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육각 전수자로, 전통 관악기의 유려하고 깊은 음색을 무대에 담는다.

춤으로 전통의 흥과 멋을 전하는 무대도 이어진다. 제30회 임방울국악제 무용 일반부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신술찬은 ‘이매방류 살풀이’와 ‘버꾸춤’을 연이어 선보이며 절제와 흥이 교차하는 국악 무용의 매력을 전한다.

마지막 순서는 김정우가 맡는다. 전통예술원 유희단원과 천안시립풍물단 인턴단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비나리’와 ‘채상설장구’로 흥겨운 장단을 펼쳐 보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파리 씨떼 레지던시서 열정 펼치세요

광주비엔날레, 18일까지 입주 작가 모집

프랑스 파리 씨떼 레지던시는 총 325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한 레지던시로 정평이 난 곳이다. 1940년대부터 파리 마레 지구와 몽마르트르가 거점이며 연간 10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창작과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올해 씨떼 레지던시에 참가할 입주 작가를 공모한다. 광주 기반의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1명을 모집한다.(현대미술 작가 중 씨떼 레지던시 입주 이력이 없는 영어 소통 가능자)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와 가나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선정된 작가는 오는 10

월 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씨떼 레지던시에 입주해 활동한다.

그동안 가나문화재단은 한국 작가들의 씨떼 레지던시 입주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해 지역 작가에게 국제 예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참조.

윤범모 대표 이사는 “이번 씨떼 레지던시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지원은 물론 국제 교류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